

# 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최종 심의평

2025. 05. 19.

심의위원장

정남석

[성명]

심의위원

유인혁

[성명]

심의위원

김대성

[성명]

심의위원

오연리

A[성명]

심의위원

김지연

[성명]

심의위원

김희영

[성명]

심의위원

최창섭

[성명]

심의위원

김지현

[성명]

# 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최종 심의평

모든 예술 분야가 그러하듯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립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 예술인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신청자 수에 비해 한정된 인원을 선정해야 했기에 전문 심의위원들이 장시간 숙고하여 선정하였음을 밝힙니다.

분야별 심의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학]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예술의 재생산을 위해, 젊은 예술가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았으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성과 섬세함이 부족한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자비 출판을 통해 활동 증명을 한 경우, 예술 활동 증빙과 계획서 낙차가 커서 꼼꼼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 [시각]

다양한 장르와 방법론에 기반한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자립 계획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지원자의 성장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기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형언어, 방법론 등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리서치 지원서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 [공연]

전문적인 수준의 예술 활동을 꾸준히 이어 왔는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충실한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간혹 AI의 도움으로 지원서를 작성한 듯한 경우도 있어 감점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음악 분야 지원자가 눈에 띄게 많았으며 음원만 발표한 경우, 음악의 완성도를 가늠할 수 없어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다원]

신규 사업이 아닌 지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작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재능과 능력을 활용한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지원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 청년 예술인들이 성장 발판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2025. 5. 19.

심의위원 정범철, 유인혁, 김대성, 오연진, 김지연, 강기명, 최창섭, 김자현